

§ 교회 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9년 표어 §

"거룩한 교회 · 민족의 구원선 되게 하소서"
(히 13:12-16, 합 3:2)

十 행동 지침 十

- 1. 교회의 거룩성 회복하여 민족의 희망
- 2. 믿음의 대를 잇는 예배공동체, 선교공동체
- 3. 하나님 역사 속의 행동하는 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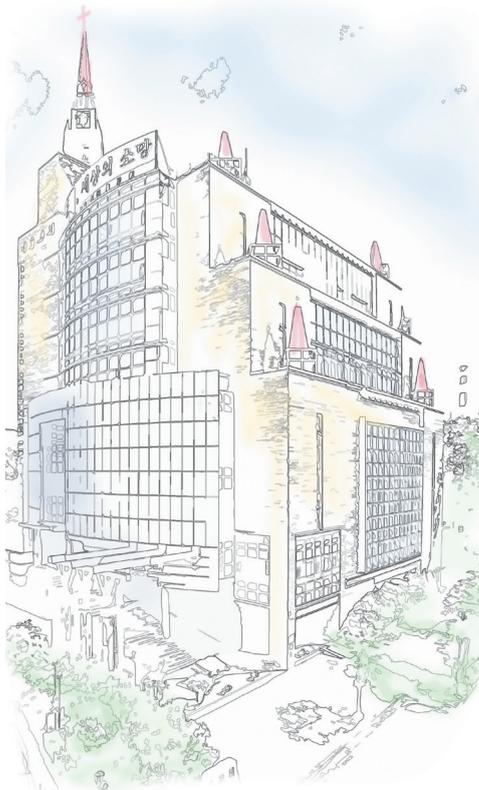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www.iseoulchurch.or.kr>



빛과 세상 II

(요 1:10-13)

이종윤 원로목사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으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고 요한은 증언합니다.

3. 영접하는 자는 자녀가 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요 1:12)

(1) 영접하는 자

11절의 영접이라는 말과 12절의 영접이라는 말이 우리말로 똑같은 단어로 표현되었지만 실제로는 그 의미가 다릅니다. 11절에 나오는 ‘영접’이라는 말은 헬라말로 ‘파레라본’이고 12절에 나오는 영접은 ‘에라본’입니다. 11절의 영접은 ‘공적인 환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공적으로 다 예수님을 거부했다는 말입니다. 반면 12절은 ‘개인적인 환영’을 말하는 것으로 개인적 구원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씩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겔 18:2).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다고 아들의 이빨까지 시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죄는 아버지의 죄고, 내 죄는 내 죄이며, 아버지 구원은 아버지 구원이고, 내 구원은 내 구원입니다.

(2) 그 이름을 믿는 자

‘이름’이 참 중요합니다. 이름은 인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 곧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인격을 믿는 자요 예수님이 하나님인심을 믿는 자입니다.

본문의 ‘믿는다’는 현재분사형으로 과거에 믿었던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3) 하나님의 자녀가 되다

‘자녀가 되는’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게네스다이’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한 번 되는 것, 되었다 말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한 번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 계속 하나님의 자녀로 남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계속적인 은혜를 입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4)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다

‘자녀’라는 말은 헬라어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테크논’이고 다른 하나는 ‘휘오스’입니다. ‘휘오스’는 ‘양자, 상속자’를 말하고, 본문에서 사용된 ‘테크논’은 ‘본성적 자녀’ 중생의 결과로 생겨진 자녀를 말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벧후 1:4).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 혹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녀’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권세’라는 말은 합법적인 권리를 말합니다. 신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행동의 자유가 있습니다. 또한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우리가 신분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분의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사단의 자식이었고 그의 종노릇 하던 자였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갖게 된 후 문화를 창조하고 인생을 적극적으로 살게 되고 모든 것에 우리가 긍정적으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죄나 안 지려고 하는 소극적인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는 발전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회가 자주 발전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은 세계에서 당당하게 사니 자주 발전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인정하고 범사를 주님 까닭에 열심을 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과 연결시킵니다.

그러나 복음에 유익 되지 않을 때는 천하를 얻게 된다 하더라도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명예가 아무리 땅에 떨어져도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합법적인 권리를 주셨습니다.

“주셨다”는 말은 선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내가 사오거나 빼앗아 오거나 얻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왜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이 선택적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내세울 권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내 생명을 오늘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다고 해서 “하나님 왜 거두어 갑니까?” 라고 항변할 수 없습니다.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본래 이방인입니다. 버림받은 자식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그것도 합법적으로 주셨다고 하였으니 우리는 절대로 교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가진 자로서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유·초등부 여름성경학교를 마치고



김서연 (초등부)

저는 아가페타운으로 여름성경학교를 처음으로 다녀왔습니다. 이번 여름성경학교 주제는 'I am a Christian' 이었습니다. 집을 떠나서 참여하는 것이 걱정되었지만 친구들과 지내는 것이 즐겁고 기대되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준비하고 진행해 주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와글와글 페스티벌, 라라랜드, 물놀이 등등)과 여러 가지

임들이 시간가는 줄 모를만큼 즐겁고 재미 있었습니다. 친구들과도 더 친해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너무 열심히 놀아서 잠을 자도 피곤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저녁에 골든벨을 하였는데 1등을 할 것이라고는 꿈에서도 생각을 못 했는데 1등을 해서 어리둥절하기도 하고 신나기도 했습니다.

교회예배시간에도 말씀 잘 듣고 성경공부도 더 열심히 해야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옳은 길을 선택하는 방법을 배운 대로 생활 속에서 열심히 실천하려고 합니다. 2박 3일이 너무 금방 지나고 일찍 끝난 것 같아서 아쉬웠습니다. 다음에도 꼭! 참여하여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모든 선생님 감사합니다.



김하진 (유년부)

너무나도 오랜만에 아가페타운에 가려고 하니 들뜬 마음을 참을 수 없었다. 숙소부터 믿음의 집까지 너무나도 보고 싶었다. 시간표를 보고 가장 하고 싶은 것을 생각했지만 너무나도 당연히 물놀이가 최고라고 생각

시간을 보냈다. 둘째 날은 아침부터 난리법석이었다. 물놀이를 하는 날이기 때문이었다.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온전히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한 다니엘의 믿음이 좋았다. 전도사님 말씀을 듣고 공과를 나눈 후 가장 기다렸던 물놀이 시간이 되었다. 아가페타운 앞마당에 엄청난 큰 풀장을 보고 가슴이 두근거렸다.

셋째 날에 들은 말씀 중에 스테반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똑같이 말해서 깜짝 놀랐다. 아무리 그래도 똑같이 말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똑같았다. 그리고 조 순위를 발표하는 시간이 되었다. 전도사님께서 카드를 주셨는데 시편 150편이 나왔다. 익숙한 말씀이어서 기억을 하고 외쳤다. 그래서 우리 조가 1등이 되었다.

첫째 날에 성경주제는 "옳은 길을 선택하라" 였다. 역시나 전도사님이 나오시기 전에 찬양팀이 먼저 찬양과 율동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렸다. 율동팀으로 섬긴다는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 와글와글 페스티벌은 첫날 시간표 중 가장 기다렸던 것이었다. 조끼리 모여서 여러 가지 게임을 하며 즐거운

그리고 두 번째로 기다렸던 성경골든벨 시간이 왔다. 가장 어려웠던 문제는 삼손이었던 것 같다. 지금까지 여러번 성경골든벨을 했지만 중간중간 내용을 기억하지 못했고 잊어버렸던 성경인물들을 다시 새길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다. 어찌다가 내가 1등이 되었다. 너무 기뻐서 소리를 지를뻔 했다.

전도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3가지라고 알려 주셨다. NO! YES! WAIT! 였다. 나도 커가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응답을 정확히 듣고 순종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너무나도 즐거웠던 여름성경학교의 여운이 아직 남아 있는 것 같다. 겨울성경학교가 벌써 기다려질만큼... 저에게 성경학교를 갈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교편지 - 러시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존경하는 이종윤 원로목사님과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님들께 러시아에서 문안드립니다. 어려운 교회상황에서도 늘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저희들은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루속히 우리 서울교회 상황이 회복되어 더 크게 주님께 쓰임받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러시아는 1년중 가장 최고의 계절인 5월 15일-8월15일의 백야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흑주(낮에도 해가 없고 어두움)기간인 겨울의 혹독한 기간을 보상이라도 해 주는 듯 사람들은 활기가 넘치고, 관광객들은 넘쳐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오렌기간 내려온 생활의 지혜로 다가올 혹독한 겨울을 보내기 위해 준비해야 한다고나 할까요?

우리가 전도서에서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칫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전7:1-4)라고 솔로몬왕이 알려주는 지혜를 배우는 것처럼 러시아인들은 여름에 겨울을 준비하는 지혜를 터득한 것이지요.

저희들은 5월에 한국문화센터(한글학교) 후학기를 마치고 종강했고, 6월에는 총회 세계선교부 주최로 제1회 PCK유라시아(러시아, 중앙아시아, 몽

골)권역 선교대회를 치루었습니다.

1. 한국문화센터(한글학교) 사역

학기를 종강하며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시립도서관에서는 김밥 만들기 행사를 하였고, 노브고로드대학교에서는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하였습니다. 한국어를 공부하는 이 학생들은 7월 남부교회 청년부 단기비전트립팀과 함께 한국어캠프를 하였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2. 제1회 PCK 유라시아 선교대회 개최

총회 세계선교부 주최로 유라시아(러시아, 중앙아시아, 몽골)권역 선교대회를 '우정선교'란 주제로 상트 페테르부르크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러시아 서부 현지 선교회는 로고스신학교와 북유럽크루즈(에스토니아, 스웨덴, 핀란드)선에서 선교대회를 하도록 준비하고 진행하였는데, 권역 총회과송선교사들이 서로 우정과 사랑을 나누며 훌륭한 분들의 강의와 선교사들간의 열띤 토론을 통하여 새로운 선교전략과 갈 길을 모색하고, 성령의 위로와 격려와 영적 새 힘을 얻는 귀한 선교대회가 되었습니다.

2019. 7. 15

김영호·서향정 선교사 드림

- 기도제목 -

1. 교회에 첫 발을 디딘 러시아 청년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것 뿐 아니라 복음도 받아 들이도록
2. 선교사역에 러시아 신종교법으로 인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3. 예배와 성경공부를 통해 말씀부흥이 일어나고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도록
4. 청년 성경읽기 모임, 장년 성경읽기 모임, 일대일 제자훈련, 켈리그라피를 통한 성경쓰기 모임 등 소그룹 모임이 더 활성화 되도록
5. 고려인 따짜야나(남편:지마, 자녀:일리아, 니키따) 가정과 안알렉산드르·현레나(자녀:일리아), 스페타의 남편 박블라디미르, 박알렉세이, 리로베르트(마사)가 한국어도 잘 배우고 교회에도 나오도록
6. 장레나, 장베라(손녀:베로니카), 장나자, 장세르게이와 장이고리 형제 등 장두국 할아버지의 후손들이 모두 구원 받도록
7. 교회학교 교사들이 더욱 믿음 안에서 세워지고 주일학교가 든든히 세워지도록(교사: 따냐 리자, 학생: 막심 야나 베로니카 비까 다니엘 소냐 까짜 일리아 니키따)
8. 벨엘교회(이고리 목사)와 화목교회(미하일 목사)등 노브고로드 지역 개신교회들이 잘 협력하여 복음전도에 시너지 효과가 나도록
9. 9월 추석 즈음에 있을 대한민국 총영사관과 노브고로드 주정부 공동주최의 '한국의 날' 행사에 우리 한국문화센터(한글학교) 학생들이 잘 준비하여 참여하고 한국문화도 알리고 전도도 할 수 있도록



- ① 제1회 PCK 유라시아 권역 선교대회
- ② 한국어 말하기 대회
- ③ 조별 교제시간
- ④ 김밥 만들기



교역자 휴가

- 서명철 목사 : 8. 26(월)-29(목) / 대행 : 장석남 목사
- 장석남 목사 : 8. 19(월)-22(목) / 대행 : 조원영 목사
- 조원영 목사 : 8. 8(목)-10(토) / 대행 : 서명철 목사

8월 의료선교 상담 일정

- 8월 4일: 김봉배(통증의학), 박동우(영상의학)
- 8월 11일: 공민호(신경외과), 이종욱(진검)
- 8월 18일: 최용준(한방), 이경진(성형외과)
- 8월 25일: 김동건(치과), 오병호(피부과)

- 예약상담 : 정현구 집사 010-2728-5939

동 정

- 금주의 식사: 교회 제공 카레라이스

2019 여름성경학교·수련회

부서	일정	장소	주제	교역자
청년1부	8월 15일(목) -17일(토)	아가페타운	순전히 만나게 하소서 (창 24:12)	심우진 목사
청년2부				
에바다부	8월 15일(목)	서울교회	도우시는 하나님 (시 121:1-2)	서명철 목사

- 전 성도 성경 읽기표 -

교구(부서): _____ 이름: _____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1년2독	확인
8월5일	월	사 48-53		수 15-19	
8월6일	화	사 54-57		수 20-24, 샛 1-3	
8월7일	수	사 58-61		샛 4-8	
8월8일	목	사 62-66		샛 9-14	
8월9일	금	렘 1-4		샛 15-21	
8월10일	토	렘 5:1-7:29		룻 1-4, 삼상 1-3	
8월11일	주일	렘 7:30-12:17		삼상 4-11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 5:39)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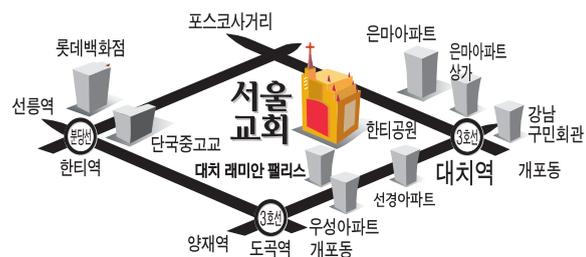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에바다부, 청년1·2부 여름수련회가 잘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수련회 되게 하옵소서.
2. 우리 교회의 모든 송사에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판결이 내려지게 하옵소서.
3. 우리나라가 정치, 경제, 안보, 외교적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시고, 복음화 된 통일조국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20분	8층(802호)
수 요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토)	본당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